



08-05 (통권 183호)
2008.02.01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중국 4분기 경제성장률 11.2%
- 기업체감경기 위축

경영 노트

- 개도국에서의 M&A, 4대 위험요인

사회 트렌드

- ‘요우쿄소 재팬’(일본에 어서오세요)

저널 브리프

- 중국 버블 붕괴 시작

洗心錄

- 눈앞의 이익에 매이지 마라

□ 중국 4분기 경제성장률 11.2%

- 지난 4분기 성장률이 11.2%에 달하는 등 최근 일련의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는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분기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1분기 11.1%, 2분기 11.9%, 3분기 11.5%, 4분기 11.2% 등을 기록하여 중국 정부가 긴축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한 4분기 성장률은 3분기 성장률에 비해 소폭 둔화되는 정도에 그침
 - 2007년 연간으로도 11.4% 증가하여 1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2차 산업(13.4% 증가)과 3차 산업(11.4%)이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1차 산업(3.7%)은 둔화 국면을 나타냄
- 한편 중국정부의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2007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에 달하는 등 중국경제는 과열조짐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중국 인민은행은 유동성 조절을 위해 지급준비율을 15.0%로 인상하였음

□ 기업체감경기 위축

- 전경련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기준치를 하회하는 등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 여파로 국내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전경련이 국내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월 BSI 전망치(원지수)는 94.8을 나타내어 7개월 만에 기준치를 하회함
 - 그 동안 전경련 BSI 전망치는 지난 7월 97.6에서 8월 102.5로 호전된 뒤 지속적으로 기준치를 상회하였으나, 서브프라임 부실 여파로 12월 BSI 전망치(103.4) 이후로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 매출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2월 BSI 전망치(가중지수)는 103.9를 나타내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더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BSI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를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치 100을 넘으면 다음 달 경기가 전월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함

□ 개도국에서의 M&A, 4대 위험 요인*

- (개요) 세계적인 컨설팅社인 BCG(Boston Consulting Group)는 고성장 개도국에서 M&A의 성공을 위해서는 4대 위험 요인에 주의해야 함을 경고함
 - BCG는 30개 고성장 개도국에서 M&A 경험이 있는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4가지 핵심 리스크 요인을 제시함

- (4대 위험 요인) 대상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 규제 관련 위험, 법·규제의 정교함 부족, 문화적 이슈 해결의 어려움으로 요약됨
 - (①정보 부족) 리서치 기업들의 부족으로 시장 전반, M&A 대상기업의 회계 등 자료가 부족해 인수기업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②규제 위험) 인도에서는 정부 규제와 각종 세금조항을 이해하는 데 9개월이 소요되고, 공기업의 민영화에는 원칙 없는 매각 사례가 많음
 - (③정교함 부족) 자산의 외국인 소유권 허용, 이익금 본국 송환 제한, M&A를 위한 다양한 금융기법 등 관련 법·규제가 없는 경우가 많음
 - (④문화) 한 가문의 이름을 회사명으로 사용하는 아시아 기업의 M&A 경우, 기업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M&A의 성공요인이 되기도 함

- (시사점)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 M&A가 본격화되는 만큼 다각적인 리스크 관리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KT가 우즈베키스탄의 이스트텔레콤과 슈퍼아이맥스를, 포스코가 말레이시아의 MESG를 인수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M&A가 활발
 - 현지 정보와 지식 확보를 위해 해당국에서 M&A 경험이 있는 컨설팅사 선정이나 KOTRA 등 정부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임
 - 규제당국과의 관계 강화 및 정부차원의 협력 요청, 합병 후 인수기업의 직원과의 융화노력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이 글은 『매일경제신문』(2008.1.29)에 게재된 “리스크 많은 개도국서 M&A 성공하기”를 요약·재구성한 것임

□ '요우코소 재팬' (일본에 어서오세요)*

- 일본 국토교통성은 최근 '요우코소! 재팬 2008' 행사를 열고 올해 관광객 유치 목표 900만 명을 목표로 6주간의 집중 홍보기간에 들어감
 - '요우코소 재팬'은 일본 정부가 2003년 4월 '일본 방문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작한 사업
 - 국토교통성은 항공사·철도회사·여행사 소속 민간인을 대거 영입해 '일본 방문 촉진(Visit to Japan) 사무국'을 설치
 - 그리고 지자체와 연계한 참신하고 다양한 외국인 유치안을 만들어내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지자체에는 49%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부 보조금을 지원했고, 200곳이 넘는 지자체가 이를 받음
 - 이듬해 3월부터 한국인 수학여행단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으며, 2005년 3월부터는 전체 한국인으로 대상을 확대
 - 대형 관광홍보 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하는가 하면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전 세계에 보내는 TV 광고에 출연해 화제가 됐음

- 이러한 정책 시행 4년 만에 일본은 관광수입 12조 원의 대박을 터뜨림
 -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자는 전년 대비 13.8% 증가한 834만 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이들이 일본에서 쓴 금액은 20.2% 급증해 1조 3,600억 엔(약12조 원)에 달함
 - 이런 결과는 단지 엔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으며, 일본 정부, 지방자치단체, 업계가 삼각 일체가 돼 외국인이 보다 쉽게 일본에 접근하고, 호주머니를 최대한 풀도록 갖은 노력을 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
 - 일본 방문자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한국으로서 260만 명이며, 다음으로는 대만(138만 명), 중국(94만 명), 미국(81만 명), 홍콩(43만 명)의 순임

- 日 정부는 29일 각의에서 직원 100명 규모의 관광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2010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수 1,00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위해서임

* 이 글은 『중앙일보』(2008.1.30일자)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 재구성한 것임.

□ 중국 버블 붕괴 시작*

- (현황) 중국 최대 부동산 중개 업체가 사실상 도산하고 베이징 선전 광저우 등 주요 도시의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중국 곳곳에서 부동산 버블 붕괴 신호가 나타나고 있음
 - 중국 부동산지수계통연구기구에 따르면 베이징의 집값은 지난해 12월 첫째 주 10.09% 하락했고, 둘째 주에 0.75% 떨어진 뒤 셋째 주 12.88% 상승 과정을 지나 마지막 주에는 20.25% 하락해 전체적으로는 두 자릿수 하락세
 - 선전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말까지 신규주택 가격이 8%나 하락
 - 한편, 베이징의 새해 첫째 주 주택 거래량은 1,266채로 전주 대비 27.4% 감소, 톈진은 43.5%, 선전은 38.2%에 달하는 등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음
 - 더욱이 이러한 거래량 감소로 창허부동산이 도산한 데 이어 베이징 최대 부동산 중개 업체인 '중톈부동산구매'의 경영진이 돈을 챙겨 달아났으며, 중국 최대 부동산 중개 업체인 '황후이그룹'이 1,000여개의 중개업소 문을 닫는 등 부동산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원인) 중국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긴축 정책, 중국 당국의 반부패 관련 처벌 형량 강화 등에 의한 것임
 - 중국 정부는 2007년 이후 6차례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 지급 준비율 또한 11차례나 인상했고, 여기에 더해, 은행 신규 대출을 2007년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강력한 긴축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한편, 2007년 상하이시 당국이 부동산 비리 혐의로 처벌한 고위급 간부는 인귀위안 부동산국 전 부국장, 주원진 부동산 토지관리국 전 처장 등 모두 6명으로 중국 당국이 반부패 관련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있는 것 또한 부동산 버블 붕괴에 일조하고 있음
- (시사점) 중국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는 구입 자금의 70% 가량을 은행 대출로 충당하는 현지 상황을 감안할 때 부동산 가격 하락→신용 불량자 양산→은행권 부실로 이어지면 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이 글은 『한경Business』(2008.02.04)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 재구성한 것임.

□ 눈앞의 이익에 매이지 말라

‘손님에게 득이 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사는 것이 나의 이념이다. 이렇게 하면 상점은 자연스럽게 번성하고 돈은 벌리게 된다. 돈은 벌리는 것이지 버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다이에이라는 대형마트 창업자인 나카우찌 츠토무의 말이다. 이러한 이념에 기초하여 다이에이는 오사카의 작은 슈퍼마켓에서 시작해 일본 간사이(關西)지역을 대표하는 대형마트 체인점을 이루었다.

하지만 다이에이는 이러한 이념을 지속시키지 못했다. 눈앞의 이익을 벌기 위해서 M&A를 추진하고, 또 벌기 위해서 신설점포를 개척하는 가운데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져 더 이상 일본에서 볼 수 없는 유통회사가 되었다.

見利而忘其真(견리이망기진).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의 참된 처지를 모르게 된다’는 뜻인 장자의 이야기는 다이에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이유를 볼 수 있게 해준다.

어느 날, 장자가 정원에서 새를 겨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새는 어쩔지 움직이지도 않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 새는 사마귀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 사마귀를 보았더니 땀땀 울고 있는 매미를 노리고 있었다. 한편, 그 매미는 자신의 놓여 있는 상황을 모른 채, 단지 기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처럼 눈앞의 이익에 매여 버리면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게 된다. 다이에이도 눈앞의 이익에 매이지 않고, 손님을 위해 상점의 존재를 사원들에게 깨닫게 하고 일 속에서 실천하게 하는 이념을 유지시켰다면 다이에이 창업자인 나카우찌 츠토무는 역사 속에 화려한 경영자로 기억되었을 것이다.

**“현명함은 열 가지로 만들어진다. 그 중 아홉 가지는 침묵이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간결한 말이다.”**

- 스코틀랜드 속담 -